

시는 예술 이전에 언어문화다 — 김대행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김대행(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질문자 이경우(서울신문 어문팀장)
 때 2016. 11. 15.(화) 곳 서울 서초동 망고모임센터

김대행 서울대 국어 교육과 명예 교수의 호는 ‘허당(虛堂)’이다. 천자문의 구절을 인용해 ‘빈 골짜기라야 소리를 전하고(空谷傳聲), 집이 비어 있어야 듣는다(虛堂習聽).’라고 스스로 호의 뜻을 풀이하고, 그렇게 살아오려 했다고 한다. 그래서였을까. 전공인 고전 시가만 관심 영역일 수 없었다. 김 교수에게는 고전과 현대시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 보였다. 문학뿐만 아니라, 교육, 언어, 학문, 세상사에 이르기까지 깊이와 넓이를 더하며 탐구하는 삶이었다. 이에 관한 생각의 흐름들을 모아 2010년 《허당공성》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2008년 정년퇴직을 했지만,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엔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간 진행한 ‘석학 인문 강좌’가 대표적이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했는데, 주제는 ‘시와 언어문화’였다. 여기서 김 교수가 말하는 시는 곧 언어문화를 뜻하고, 문화는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니 문학을 전공하고 40년 넘게 문학을 가르쳐 온 김 교수에게 시는 삶을 탐구하는 도구였던

셈이다.

김 교수는 고전과 현대시를 아우르면서 우리 시가 인간적 본질을 추구하고 구현한 세계를 곳곳에 알리고 있었다. 김 교수는 정년 퇴임할 즈음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언어문화 이론을 정립하는 데 여생을 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가 평생 연구하고 탐구해 온 문학, 국어 교육, 언어, 문화에 대해 들어 봤다.

■ 먼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물었다. 좋았다는 말과 함께 ‘문화’의 개념에 대한 답변이 짧게 이어졌다.

고맙다는 인사를 해 온 것은 기대 이상의 점수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문화라는 단어는 쓰는 사람마다 개념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도 얘기할 때 앞에서 말하는 문화와 끝날 때 쓰는 문화의 개념이 바뀝니다. 매우 통속적이면서도 난해하고 복잡한 개념이 문화입니다. 또 시는 예술 분야인데 왜 이걸 문화로 다루는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는 문학 공부를 했고, 서울대학에 가서는 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어 교육 중에서도 언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핵심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 해서 문화를 생각하게 됐지요.

■ 좋은 반응을 얻은 인문 강좌 ‘시와 언어문화’에서 전달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들어 보았다. 선생은 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시를 예술로 보기 이전에 문화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특히 언어문화인 거죠. 한테 사람마다 문화의 개념이 다릅니다. 인류학에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웨이 오브 라이프(way of life)’입니다. 즉 삶의 방식이죠. 이것이 가장 널리 쓰이는 뜻이기도 하지요. ‘문화’ 하면 신문사에서는 미술, 음악, 종교, 학문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런데 ‘교통 문화’ 하면

이긴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시를 언어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언어생활이 구체적인 방식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시인 거죠. 개인적 존재인 인간이 언어로 탐구하는 구체적 모습이 시라는 것입니다. 탐구라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람의 언어가 뭔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죠. 그 구체적인 형태로 가장 쉽게 청중을 설득한 게 유치환의 <깃발>이에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은 사전에 보면 깃대에 매달아서 뭘 표시하는 형겼인데, 유치환은 이것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습니다. 펠릭스는 깃발을 보면서 저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습니다. 깃발은 형겼이지만 거기서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 사물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지요. 시인이 이 세상을 보고, 사물을 새롭게 본 것인데 탐구죠. 모든 인간이 탐구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을 말했습니다. <형이상학>책을 펴면 첫 줄에 그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만이 알고 싶어 하지요. 그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거죠. 그게 가능하게 한 것이 언어라는 겁니다.”

■ 인간에게 언어란 무엇일까. 인류는 언어를 어떻게 봐 왔을까. 언어로 이루어진 시는 또 무엇일까. 선생은 이렇게 설명했다.

“언어가 없었으면 사람도 개나 돼지처럼 살았을 겁니다. 언어가 있기 때문에 앞서 사람이 알아낸 것을 새롭게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것에 더해 새롭게 쌓아 가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무지의 존재로 태어나지만, 그리고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하게 태어나지만, 100년도 채 안 되는 세월을 살면서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그 언어의 힘이지요. 그 언어를 압축적으로 구사하는 탐구 활동이 시라는 것입니다. 시는 언어의 집약인 것이죠. 시는 무엇을 알아내는 말이라는 것입

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무슨 국화 키우는 영농 일지냐고 할 수 있지만, 국화 한 송이가 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노력과 세월이 필요했겠는가 이 말이지요. 그것이 셋째 연에 가면 국화 얘기만이 아닙니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 하죠. 인생 이야기입니다. 인간 탐구예요. 처음에는 국화 얘기로 시작했지만, 핵심은 내 누님인 거죠. 시는 일차적으로 개인적 존재인 인간이 알고자 하는 노력이지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시는 소통의 도구인 것이고요. 그런데 소통에서 제일 강렬한 게 뭐냐면 울음입니다. 울음 앞에서는 안 통하는 게 없죠. 울음은 진지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을 넘어서는 데 시가 있습니다.”

공감하고 노래하는 게 문학

■ 선생은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도 시라고 했다. 그래서 물었다. 밥 딜런이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두고 그의 노래가 문학적인지, 수상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지 않은 답이 돌아왔다.

“‘역시 노벨상답다.’ 그랬어요. 왜냐?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문학 주의자라고 그래요. 문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탁월한 능력과 노력과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고매하고 좋지요. 실제로 시인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과연 시냐, 문학의 역사를 한번 보죠. 공자가 300편을 모아 놓은 《시경》이 뭐냐? 민요예요. 시인이 쓴 게 아니예요. 백과사전이나 인명사전을 펴면 정철, 윤선도가 뭐라고 나올까요? 조선 시대 선비, 학자 이렇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게 시인이냐, 소설가냐 하는 이런 명칭은 언제 생겼냐면,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선 뒤입니다. 정철이나 윤선도

는 시를 그렇게 풍성하게 썼지만, 시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간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니까요. 그럼 시인, 소설가는 뭐냐? 그걸로 밥을 먹는 직업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시인, 소설가들이에요. 그럼, 원래 시란 뭐냐, 소설이란 뭐냐? 다 사람들의 말이다 이거죠. 말인데, 시는 조금 압축된 노래이고, 소설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걸 직업으로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것을 고결하게 강조해야 돼요. 사람이 뭔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걸 더 섬세하게 내세우게 됩니다.

문학 하는 사람들은 문학이 뭔가 고매한 지성과 감성, 이런 것을 추구해서 수준 높은 이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뭔가 이로우면 그걸 비교화하는, 비밀스럽게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난해시니 뭐니 생겨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딜런에게 상을 준 것은 문학의 본래 모습을 본 거죠. 밥 딜런의 노래가 시적으로 우수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수의 그 노래가 시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판단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처칠이 《제2차 세계 대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 처음일 텐데, 이것인 문학의 본모습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노래하고 공감하는 게 문학입니다. 공감하지 않는 게 어떻게 문학일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 이러한 문학의 문제를 바꿔 나갈 수 없는 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 지하철역에 가면 못해도 20개 정도는 안전문 유리에 시를 붙여 놔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누가 나를 보지 않나.’ 하고 물러나게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43년을 배우고 가르치고 한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말을

꾸미고 있는 거죠. 개인만의 감성이나 수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고매와 순수를 추구한 것이죠. 그것을 난 문학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학주의 옆에는 학교 교육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학 교육을 시급하게 고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깃발>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에서 ‘아우성’에 밑줄 긋고, 원관념이라고 하죠.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 국어 교육과 문학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언제 다시 배울 일이 있습니까. 문학을 설명하는 교육, 이게 지금 문학 교육입니다. 몇 년 됐는데, 중학교 교과서에 소설가 김영하의 글이 실렸었습니다. 한데 김영하가 ‘내 작품 빠라’고 했죠. 교과서에 실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게 문학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문학 얘기가 아니고 문학을 설명하는 교육이라는 거죠. 문학에서는 설명적 지식이 아니라 소통하는 인간을, 인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 그러면 우리는 문학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문학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점점 소통 의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이 오면 서로 배려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른 것이죠. 영국 오픈유니버시티에서 연구한 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워크맨이 개인화 사회의 시작이라고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절의 신호입니다. 한데 지금은 귀만이 아니라 눈까지 다른 곳에 몰두해 있습니다. 지하철은 승차 공동체인데, 불이 나면 같이 꺼야 하고, 버스에서는 기사가 난폭 운전을 하면 같이 막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공동체인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같은 기억과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 공동체가 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어서 할아버지가 언제 일어나는지 알았죠. 제일

나이 든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았고요. 지금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데다 하는 일이 달라요. 아버지, 어머니, 형이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가족이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공동체 활동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텔레비전을 켜 놓고 밥을 먹습니다. 그건 주부에 대한 모욕이에요. 주부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냈는데, 눈으로 텔레비전 보고 입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심각하게 깨져 버리죠. 문학이란 같은 얘기를 읽는 공동체죠. 문학은 무너져 나가는 공동체를 문화 공동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방에서 시작된 문학

■ 여기서 궁금해졌다. 선생은 어떻게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문학을 공부하게 됐을까.

“문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좀 쓴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글을 하나 써 오라고 했는데, 제목이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여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모에게 숙제 한 번 해 주면 심부름 다 해 준다고 하고 부탁했죠. 그 글을 담임 선생님이 잘 썼다고 칭찬하고 복도에 직접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 뒤에는 《새벗》, 《학원》 같은 잡지를 베꼈습니다. 이것은 표절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방이죠. 손가락 잡는 것도 남이 하는 거 보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게 개인의 개성을 확립해야 할 나이에도 계속하면 문제인 거죠. 작가의 표절은 안 되는 것이지만 모든 문화는 표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시도 좀 써서 상도 받았습시다. 선생님 칭찬을 받았죠. 칭찬이 중요한 교육적 메커니즘이죠. 대학에서도 시를 써야 할 텐데, 아무리 봐도

나는 동료들처럼 못 쓰겠더라고요. 문학의 밤 2학년 가을에 <라스트 포엠>이란 시를 썼습니다. 한데 남들은 잘 쓰는데 나는 못 쓰겠다고 생각하고 시 쓰기를 멈췄습니다. 서울대 국어 교육과는 국어학 전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국어학 공부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 시절에는 취직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문학을 언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왜 현대시와 고전시는 다른 세계인가 하는 것이었죠. 전공자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우리나라 시인데, 일종의 나뉜 먹기식의 관행이 굳어진 것입니다. 한데 꿰뚫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전 쪽에 관심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 때는 ‘한국 시의 기본 구조 연구’라고 해서 고전과 현대를 아울렀고, 거기다 민요를 묶어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현대시와 고전시를 같은 반열에 놓고 연구한 거죠.”

■ 그가 민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방송과 관계가 있다. 대학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문화방송(MBC)에서 프로듀서로 있는 후배가 방송 원고 한번 써 보라는 전화 연락을 해 왔다. 이때 원고를 위해 판소리 사설을 들여다보게 된 게 인연이 됐다.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어요. 방송은 출연자가 나와서 자기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원고가 필요하냐는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 길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말에 관심이 많았고, 글쓰기 훈련도 돼 있었죠. 조교 월급도 많지 않았는데 원고료의 매력이 있었지요. 시사 콧트와 국문학에 관한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 방송국을 드나들면서 민요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해학성이 필요한 판소리 사설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게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판소리학회장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문학을 바라보는 세계가 민요, 판소리, 고전 시가, 현대시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 그래서 선생은 대전에 있던 송전대에서는 현대시를, 이화여대로 옮겨서는 고전시를 가르쳤다. 그러다가 1989년 서울대로 가게 됐는데, 많은 고민에 휩싸이게 된다. 이 무렵 5차 교육 과정이 들어서게 되는데, 논란 끝에 국어 교육이 언어, 문학,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6개 영역으로 나누게 된다. 그때 만든 국어 교과서는 각 분야가 6분의 1씩 쪼개졌는데, 김 교수는 이를 국어 교육의 야만화, 원시화라고 했다. 5차 교육 과정은 김 교수가 언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김 교수는 5차 교육 과정에 대해 실망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궁리하다가 외국의 사정을 살피고 언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학생들이 보기에는 신선하거든요. 지금까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 원관념, 보조 관념이니, 플롯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국어 교육의 본령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옳아요. 말은 생각의 도구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확 쏠립니다. 문학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죠.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학이라는 게 용어 좀 하고 영화 본 얘기, 여행한 얘기, 연애한 얘기 이게 문학 아니에요? 그런 것에 식상해하던 차에 이런 바람이 부니까 확 쏠렸죠. 이게 20년을 갑니다. 국어, 자기 나라 말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거예요. 교육 목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요. 그러면서 주로 언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국어 교육의 목적은 나라마다 달라야

■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어 교육의 목적이 달라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을 본 것이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드물었다. 미국도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나라마다 왜 국어 정책이 다르냐면 언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언어 환경은 아주 드문 예입니다. 미국은 벌써 그 시절, 그러니까 1990년 전후죠. 미국에서 대학 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과 교사가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낸 보고서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경험을 발표한 내용이 나옵니다. 43개국에서 온 16개 언어 사용자를 교육했다고 합니다. 16개 언어 사용자에게 영어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16개 언어 사용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집에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라는 거죠. 대개 그런 환경들이에요. 인도를 생각해 보죠. 공용어를 영어로 정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령 벵골어를 쓰는 사람이 1억 5000만 명, 힌디어를 쓰는 사람이 2억 명이죠. 어떻게 해 볼 길이 없는 거예요. 다언어 국가인 거죠. 우리처럼 전 국민이 하나의 언어로 공적 생활이나 사적 생활을 다 하는 나라는 일본 정도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영어 교육은 뭐냐면 43개국에서 온 16개 언어 사용자들을 영어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여기서도 바른 언어를 쓰게 하는 것과 공적인 생활에서 모든 시민이 영어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예요. 공적 언어 사용을 목적으로 영어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부터는 이것이 영어 교육의 목적이 아니예요. 문학, 예술 이런 쪽으로 갈라집니다. 내가 1996년에 영국을 가게 되는데, 영국은 오랫동안 관습에 따라 가르쳐 오다가 공적인 과정에서 가르치는 진통을 그 전 해에 겪었더라고요. 우리는 영국의 표준어 하면 ‘퀸스 잉글리시(Queen’s Englis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대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학교 교육이 퀸스 잉글리시를 가르쳐야 하느냐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되더군요. 영국 노동 계급의 영어는 영어가 아니예요. 다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언어를 세대적으로 물려줘요. 그리고 사투리, 특히 호주에서 많이 듣는 고어들을 런던 쪽에서는 많이 씁니다. 영국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집에서는 스페인어 하고 나가서는 영어 하면서 사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영어 교육의 중요 목적이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 환경이 전혀 다르잖아요. 요즘은 다문화 사회가 돼 가면서 문제가 되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국어 교육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해야 한다는 사람의 주장은 미국을 보고 온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지요.”

■ 그래서 그는 우리 국어는 무엇인지, 언어는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된다. 지금 우리는 국어학, 국문학만 국어라고 하는데,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잘 정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질로서의 언어는 하나의 체계를 가진 활동입니다. 그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국어학이에요. 한편으로 언어는 말하고, 읽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걸 바로 말하기, 듣기, 쓰기라고 하는 분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어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문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화의 중요한 개념이 국어 교육의 내용에 들어와야 합니다.”

■ 그의 중요 관심 분야 중 하나인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들었다.

“문화 얘기를 이렇게 하죠. 제가 유럽 여행을 하는데 미국에서 온 친구와 며칠 같이 지내니까 친해져서 이렇게 물어요. ‘한국에서 충을 갖느냐’고요. 우린 그런 거 없다고 했죠. 그럼 화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역시 미국인답지 않아요. 우리는 욕으로 해결한다고 하려는데 욕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로 저주스럽게 얘기하면 화가 다 풀린다고 그랬죠.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욕이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만약에 그 욕이 미국식의 사실적 표현이라고 상상을 해 보면……. 미국 사람은 ‘아이 엠 소리.(I am sorry.)’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네가 그렇게 말했다.’입니다. 우리는 전부

문서로 증명하죠. 그 사람들은 말로 하거든요. 영국 들어갈 때 ‘관광’ 목적이
라 하고 들어가서는 비자를 연장하려고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너 관광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릅니다. 거기서는 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가수 한 분이 남편에게 다니러 왔는데, 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뭐냐고 했더니 ‘관광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남편 만나러
온 게 확인됐죠.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그건 범죄 행위예요. 그게 문화인
거죠. 우리나라에 ‘말이 그렇단 말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말이 그렇다’
이게 우리 말 문화예요. 이진 국어학에서도 국문학에서도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언어생활인데요.”

■ 그럼, 그가 생각하는 언어의 기능은 뭘까.

“첫째, 사고거든요. 음악가는 음향으로 사고한다고 하고, 화가는 색채로
사고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고는 언어로 하죠. 언어가 어눌하면 생각도
잘 안 돌아가잖아요. 논술 교육을 얘기하는 미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비판적 사고를 꼽는데, 이게 논리적 사고인 거죠. 이것을
교육 항목에 넣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소통 분야예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매체가 아주 다양해졌습니
다. 어느 매체로 얘기했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
데, 옛날에는 전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보세요’였는데, 현대 전화가
생긴 지금은 ‘어디야.’입니다. ‘어디냐’를 물어야 그다음에 할 말이 결정됩니
다.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말이죠. 내용도 달라지고 어조도 달라지
고요. ‘어디야.’ 이게 콘텍스트예요. 언어가, 콘텍스트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 그래서 그는 국어 교육이 포함할 분야를 여섯 개로 나눈다.

“첫째는 체계(화용론, 담화론 등)이고, 그다음은 행동(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다음에 문학, 사고, 소통, 문화입니다. 저는 영국에 다녀온 다음에 국어 교육에 매체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많이 공감을 얻었죠. 국어 교육의 입체화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본 거죠. 왜냐? 옛날에는 교양 국어가 필수였는데, 74, 75년에 슬금슬금 없어지는 분위기였죠. 제일 먼저 공과 대학 학장 회의에서였습니다. 전국 공과대 학장 회의에서 교양 국어가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법과 대학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률 용어라면 모를까 교양 국어가 무슨 필요가 있는냐는 거였죠. 교양 국어가 왜 그런 비난을 받았느냐면, 대개 교양 국어가 국어학 선생이 들어오면 국어학 얘기 좀 하고 국문학 선생이 들어오면 문학 얘기 좀 하고 그랬죠. 많은 부분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에 교양 국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서울대가 상징적으로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근데 국어라고 안 하고 국어 작문이라고 합니다. 국어학 지식, 국문학 지식이 공과 대학, 법과 대학에 무슨 필요가 있는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국어 교육을 6개 영역으로 입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문화는 삶의 방식이다

■ 그는 이를 위해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하길 원했고, 1996년에 영국을 가게 된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는 사회생활에서 레이스(race), 즉 종족이 어디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젠더, 남성 여성, 그다음에 사회 계급 주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건 위크맨 연구소 같은 거죠. 말하자면 개인화 사회의 도래

문제죠. 그 사람들 문화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기 시작한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웨이 오브 라이프’, 삶의 방식이죠. 음식의 웨이 오브 라이프는 음식 문화, 자동차의 웨이 오브 라이프는 자동차 문화죠. 말에 갖다 붙이면, 말의 웨이 오브 라이프는 말의 문화죠. 욕설은 말의 문화, 거짓말도 말의 문화인 거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바로 문화라 이 말이죠. 욕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논리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문화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언어 행위가 문화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문화 하면 문화인을 떠올리고 고양된 거, 좋은 것을 말합니다. 20, 30년 전에 세종문화회관에 이미자가 대관 신청을 했을 때 거절당했죠. 이미자 노래는 문화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문화는 넥타이 매고 연미복 입고 이게 문화인 거죠. 지금은 고급문화, 상층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화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엔 화가, 음악가, 신문 기자도, 교수도 문화인에 속했겠죠. 지금은 문화인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 그는 이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엄친아’는 야만적인 말이라고 했다. 이것은 아이의 삶의 기준을 남에게 두는 방식이라며, 이런 언어문화를 질타했다.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고 누구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남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야만스러운가를 증명해 주는 게 엄친아 문화라는 것이죠. 엄친아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엄마 친구의 아들이 자기 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애는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은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 친구의 아들을 갖다 대나요. 아주 비인간적이고 야만스러운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점점 야만의 늪으로 가는데, 삶의 기준, 척도가 남에게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만

한 집에 살면 된다.’가 아니라 ‘저놈보다는 내가 좋은 집에 산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야만스러워요. 지금 엄친아, 이것도 언어문화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 낸 방식, 삶의 기준이 이 아이의 개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애에게 있는 것이죠. 아직 그런 언어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인간은 역사적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나 역사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 그는 국어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세우는 데도 힘써 왔다. 그가 생각하는 언어 생활과 언어문화의 방향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이 국어학자들만 모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학만이 언어가 아니고 예술, 사교, 소통, 문화, 행동…… 이게 다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국어가 다루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시각을 다양화하고 입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평에 있는 한의사한테 침을 맞으러 갔는데, 한의사가 뭘 가르치냐고 하길래 언어를 가르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자기도 언어가 전공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중에 보니까 언어 발달이 어눌한 애들이 침을 맞으면 말이 트이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 전공이죠. 언어란 이렇게 다양화돼 있다는 거죠. 국어학, 국문학만 가르치니까 국어가 약해졌습니다.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니까 국어와 국문학을 가르치라 하지만, 사범대의 국어 교육과는 교과 내용을 최소한 여러 분야로 나눠야죠. 언어를 바라보는 눈도 어학자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이고, 학교 교육도 혼고 주석식 강의도 벗어나야 합니다.”